

새봄 향기 가득 품은 초록빛 물결 향연

‘반려식물’展...오는 22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다양한재료·기법으로 실내·정원식물 담은 6인 작품

생명으로 가득한 봄날을 맞이해 초록빛 향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진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22일까지 ‘반려식물’ 전시를 연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나 푸를 것 같던 생명은 금방 시들고 만다. 그렇기에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특히 모두가 모두를 위해 각자의 공간에 머물러야만 했던 코로나19 시기, 식물들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줬고 그만큼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이들이 늘었다.

반려식물이 건네는 위로는 작가들에게도 다가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작가들은 자신이 아끼는 식물 모티브로 작품을 남겼다.

이번 전시에는 각기 다른 재료와 기법을 이용해 실내와 정원 식물의 모습을 담은 작가 6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입체설치, 유화, 공예

등 개성이 담긴 작품과 함께 ‘나에게 반려식물이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권예솔 작가는 화분 속 식물들에 행복의 감정들을 담아낸다. 안정된 행복은 불현듯 나오는 게 아니라 순간이 쌓이고 모여 완성된다. 그가 실내 식물에 주목한 이유는 사람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끌어들이는 생명력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작가는 순간순간 느꼈던 감정을 바탕으로 실내 작은 풍경들을 채워나간다.

아일랜드 작가는 반려식물을 기르는 것은 자신에게 온전하게 주어진 여유라고 생각한다.

그는 과도한 손길보다는 무심한 온도나 햇살이 반려식물을 건강히 자라게 하며, 그 무심한 관심을 주기 위해선 그 공간의 온도와 습도를 함께 느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전유리 작가는 곁에 두고 싶은 식물들을 종이 위에 그리고 오려 붙여 페이



권예솔작 '누군가의 정원'



조은솔작 '딩어리'

퍼 콜라주한다. 식물을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그는 손길이 담긴 종이 식물들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

식물 일러스트를 선보이는 전태형 작가는 반려식물을 ‘배울 점 많은 든든한 친구’라고 답한다. 인쇄된 것 같지만 작가는 창자자에게도 무궁무진한 성장의 가능성을 꿈꾸게 한다.

정인혜 작가는 주관적 색채와 붓터치, 마티에르를 통해 자연의 다채로운 모습을 조화로운 화면에 담아낸다.

작품은 관람객이 마치 식물원 한가운데 서있는 듯한 감각을 전한다.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관찰해 그림으로 펼쳐낸다.

조은솔 작가는 천과 솜·충전재·플라스틱망·철사·그물 등으로 만든 설치 작품 ‘딩어리’를 선보인다. 또한 최근 작 ‘서식지’를 통해 세상의 틈을 탐색하고 다른 차원의 공존과 생태적 논의를 제안한다.

김수영 광주신세계갤러리 큐레이터는 “작은 정원에서, 때로는 머리맡에 자리한 화원에서 우리 곁을 지키는 식물들은 함께 살아가며 영향을 주고받는 훌륭한 인생의 짝”이라며 “작품을 관람하며 자신에게 반려식물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아일랜드작 'Fishbone'



정인혜작 'forest'



전유리작 '반려식물'



전태형작 'Plant 13'



'Light 2024-4A'

우제길미술관 특별기획전 'Shape of Light'

오는 23일까지

호남의 대표적 추상 화가인 우제길 화백의 확장된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이 마련됐다.

오는 23일까지 우제길미술관에서 열리는 특별기획전 'Shape of Light' 다.

이번 전시는 전남도립미술관 우제길 초대전 '빛 사이 색'을 기념한 자리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2021년도 작품부터 2024년 신작까지 총 24점 회화를 선보인다.

전남도립미술관 전시작들이 대작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 이번 전시는 소작과 중작들로 구성돼 있어 우 화백

그림의 또다른 묘미를 느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경 우제길미술관 학예연구사는 “현재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초대전과 이번 특별전을 모두 관람함으로써 관람객들은 우 화백의 확장된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동명동 둘레길 걸으며 광주폴리 함께 즐겨요”

제5차 광주폴리 시민 프로그램...4-6월 총 30여회

(재)광주비엔날레와 광주시가 추진하는 제5차 광주폴리 '순환폴리 ReFolly'의 올해 첫 시민프로그램인 '광주폴리 랑도네'가 펼쳐진다.

프로그램은 4-6월 동명동 일대에서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여회 진행된다.

랑도네는 쉬지 않고 오래 걷는 '긴 나들이', '긴 산책'을 뜻하는 프랑스어다. 산책길로 각광받는 동구 푸른길과 동리단길 등 동명동 일대 광주폴리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더욱 친근해질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광주폴리와 오는 6월 완공되는 제5차 광주폴리를 함께 엮어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둘레길 거점인 '숨쉬는 폴리'에서 출발해 동명동 일대 도시 환경과 어우러진 10여 개의 건축조형물인 광주폴리를 만나볼 수 있다.

광주폴리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은 물론 제5차 광주폴리 주제인 '순환폴리 ReFolly' 관련 기후변화와 자원 순환 등에 대한 이야기도 전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제5차 광주폴리 첫 거점인 '숨쉬는 폴리' 전경

으며, 성인의 경우 60분 프로그램과 90분 상세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은 60분 동안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실천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5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광주폴리 둘레길 걷기 '랑도네 프로그램'을 1차 운영하며, 6월에는 제5차 광주폴리 완공 후 이를 중심으로 한 광주폴리 둘레길 걷기 2차가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 시 식물을 담아갈 수 있는 보조가방(에코백)과 텀블러를 지원하는 경우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기정화 식물 나눔 및 음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한 회차 당 10-15명 제한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폴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ACC, 서울 교향악축제 실시간 중계

오는 5-27일 금·토 예술극장3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대향연을 광주에서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ACC는 오는 5-27일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2024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를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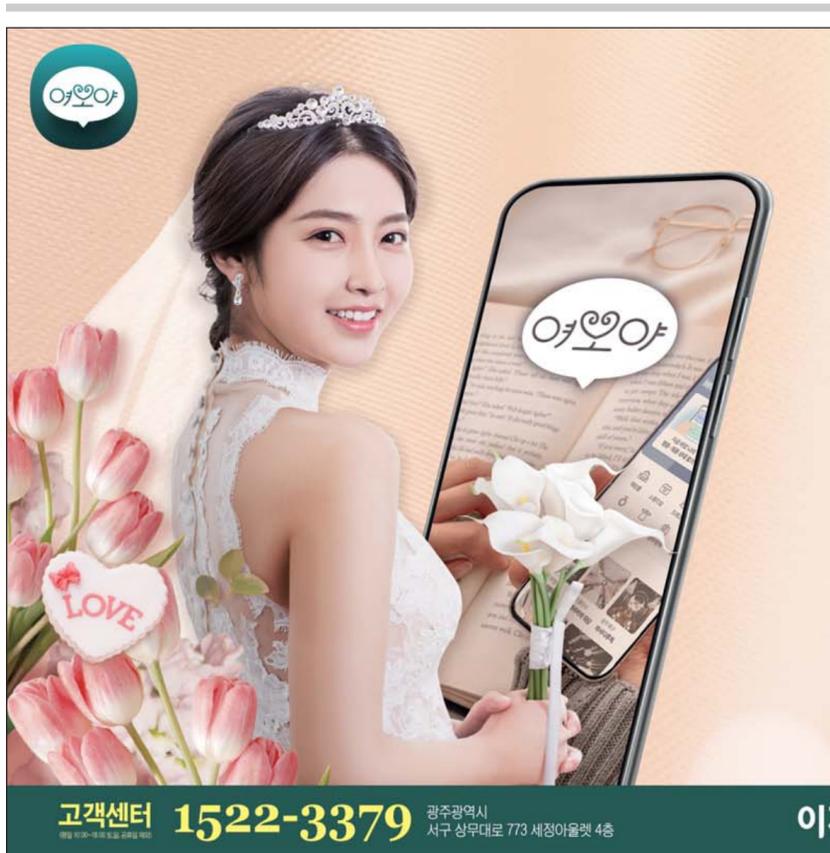
ACC는 지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 예술의전당과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오는 4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교향악축제' 일부 무대를 금·토요일 총 8회에 걸쳐 실시간 영상으로 내보낸다.

이번 공연의 주제인 'The Wave'는

클래식 물결들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적 파동을 이룬다는 의미다.

교향악축제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전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심포니송 ▲광주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 한다. 서울과 광주의 공간적 장벽을 뛰어넘은 이번 공연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봄의 교향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예매는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7세 이상 입장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최명진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